삼각패스로 하나님 섬기기

(여호수아 24:1~33)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삼각패스로 하나님 섬기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삼각패스로 하나님 섬기기'

축구 역사에 "글래스고우 충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872년 11월에 축구역사상 최초의 국가대항전이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경기였습니다. 스코틀랜드 대표 팀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2-2-6 시스템으로 잉글랜드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은 볼을 받으면 오로지 드리블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축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공을 잡으면 일단은 내가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방 수비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때에 패스를 하고, 또 공을 건네 받은 선수는 난공불락의 수비에 막히기 전까지는 계속 몰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될 때에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롱패스나 드리블 공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짧은 패스로 공간을 여는 공격을 연습하고 국가대항전에 임해 온 세계의 축구계가 깜짝 놀랐는데, 공을 잡으면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 축구를 잘하는 것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남미 축구의 특성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스코틀랜드가 짧은 패스로 정

해진 축구장 안에서 오묘한 축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묘한 축구’는 수비로 인해서 꽉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패스해서 다른 선수에게 넘겨주면 공격의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혀도 패스하고 막히기 전에도 패스하므로 계획한 수비 체제를 갖출 수 없도록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패스를 함으로 공간이 새롭게 열리고 구도가 바뀌니 수비를 할 수가 없어서,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에 무려 7:2로 대패하게 되는데 이 경기가 아주 전설과 같은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영국과 유럽 축구 전체가 패스 위주가 되었고, 특히 스페인에서 티키타카 패스로 쉬지 않고 공간을 열어서 상대방 선수가 수비를 할 수 없게 하는 축구가 꽃피게 됩니다. 모든 감독들이 ‘사람이 공보다 빠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천SK의 감독이었던 발레리 니폼니시도 ‘슛은 골문을 향한 마지막 패스’라고 했습니다. 즉 골문의 빈 구석에 패스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골을 넣는 것이 축구인데 축구는 패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축구의 근본이 되는 패스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스가 바로 삼각패스입니다. 내가 앞쪽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고 뛰어 들어가면, 공을 받은 동료가 내가 뛰어 들어가는 앞쪽으로 패스하므로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 이 삼각패스가 가장 위력적이고 많이 사용되며 공격에 가장 유용한 패스인데 하나님 섬기기도 바로 이 삼각패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요점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앙이란, 내가 내 인생을 드리블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드리블을 하다가 변수가 생겼을 때에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인생의 삶의 방식 자체를 삼각패스로 고정시키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동료로부터 패스를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골을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패스하시고 뛰어 들어가시며 내 인생에 골을 넣으시려고 합니다. 이때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다시 패스해드리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여호수아가 생을 마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유훈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교훈 속에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강조하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이 1~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되기까지 700년 가까운 세월의 역사를 회고하는데 그 방식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1인칭 주어로 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회고 하시는 방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언약을 맺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임을 약속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다. 홍해를 건넜다. 애굽 군대를 멸절시켰다. 광야에서 너희를 살게 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를 멸절시켰다. 발람의 저주사건을

무효화시켰다.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계신데 왜 여호수아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700년 동안 너희들의 역사 속에 직접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강조한 부분을 이해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며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어필하려고 하는 강조점을 바로 이해를 하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선민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삶에 오셔서 친히 행하시려는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12~13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라고 하시는데 ‘먹는다.’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섬기기의 기가 막히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내용은 다 이 땅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좀 더 확장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친히 행하시려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이웃을 섬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섬기시려는 사랑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모순됩니까?
‘섬긴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섬김의 대상을 위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수행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순되게 섬기는 법이 바로 삼각패스입니다.

‘삼각패스’는 내가 패스를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입장입니다. 이 삼각패스가 잘 되어서 골이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패스하시는 공을 잘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패스하고 골대를 향해 뛰어 들어가는 동료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합니다. 패스하고 들어갔는데 딴 곳을 보고 있으면 뛰어 들어간 선수가 허탕을 치고 멈춰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 앞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다시 패스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공을 잘 받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스하십니다. 패스하신 공은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내 눈 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상황이나 환경적인 조건이나 내가 속한 회사나 단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입니다. 이 공을 잘 받으려면 어제 말씀대로 기름기를 쫙 뺀 담백한 곰탕 국물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하는 사람과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여 판단하는 상태를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좋아하는 상태는 패스 받았는데 미끄러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쓰러져버립니다. 싫어하는 상태는 공을 놓치는 상태입니다. 두 경우는 모두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삼각패스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 감정과 판단이 이입된 상태의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패스하신 현실의 공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되어진 공의 현실이나 대상의 상태는 다윗 왕의 자리로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까지 등급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능시험은 9등급까지 있지만 현실은 1000등급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공을 잘 받으려면 마음이 ‘등급’이라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 가까워지면 마음이 좋아서 집착하고, 순교의 자리에 가까운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이 싫어서 거부한다면 삼각패스가 불가능해지고, 하나님 섬기기는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렸거나, 건강하거나, 사업이 안 된다거나, 잘 된다거나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태를 대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섬김이 끝나는 것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쐈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개하고 있을 때에, 정치인들 중에서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죽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대한민국과 이북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의도하시는 대로 이끄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동료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 좋아함과 싫어함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기름기를 빼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내 눈앞의 현실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5: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결해지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에 우리 마음이 이입되기 때문인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공을 받은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면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엄청나게 싫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게 되는데 이때에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자리 같은 현실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 같은 현실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서거나 순교의 자리에 서거나 내 마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로키 산 정상이나 골짜기나 같은 평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보면 꼭대기는 높이 있고 골짜기는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모습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닥을 기고 있는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나처럼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볼 때에 다윗 왕의 자리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가 같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고 삼각패스가 완결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골을 넣으시도록 패스해야 합니다. 순교의 자리처럼 고난의 자리라도 그것이 내가 미워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 왕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더라도 내게 좋으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골)과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현실이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뜻대로 골을 넣으시라.’는 기도를 하며 패스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선민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훈으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계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삼각패스를 완성하는 자입니다.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패스하신 공이므로, 하나님이 패스하신 공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다시 패스해드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패스에 대해 좋아함과 싫어하는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제대로 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야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현실은 하나님께로 돌려지며 친히 골을 넣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를 위하시지 못해 안달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계획을 행하실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섬김임을 알았사오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삼각패스를 완성함으로 온전히 이 모순된 하나님 섬기기를 날마다 완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